

 전북발전연구원 <small>JEONBUK DEVELOPMENT INSTITUTE</small>	<h1>보도자료</h1>	자료제공	기획조정실
		담당자	홍보담당 남지나
		연락처	063-280-7117
		홍보담당	남지나/063-280-7117

전발연 신기덕 원장 퇴임

- 전북발전연구원 신기덕 원장의 퇴임식이 6월 4일(금) 전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2층)에서 개최된다.
- 대구가 고향인 신원장은 지난 2007년 6월 전북발전연구원 3대 원장으로 취임한 후 3년의 임기를 마쳤다.
- 신원장은 3년 동안 연구원의 역점사업으로 연구역량 배가를 위한 고급의 연구인력 확충, 투명한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의욕 고취, 정보의 소통과 대내외 긴밀한 협력을 통한 열린 연구를 강조하면서,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북도정을 리드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신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연고가 전혀 없는 낯설고 물설은 이곳 전북에서 3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개인적으로 재임 기간동안은 지역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 신원장은 또 미래성장동력인 새만금과 동부권의 청정한 자연환경이 전북의 무한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미래자원이 될 것 이라고 피력했다.
- 3년의 재임기간동안 신원장은 새만금 마스터플랜, 경제자유구역지정, 동부권 발전계획 등 전북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연구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 신원장은 앞으로 전공에 걸맞는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등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신원장은 서울대경제학과, 미국벤티빌트대 경제학 석박사 졸업 후 산업연구원, CJ그룹 경영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07년 6월 전북발전연구원 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 <붙임> 1. 전북발전연구원장 사진
2. 전북발전연구원장 이임인사말

1. 전북발전연구원장 사진



2. 전북발전연구원장 이임인사말

이임인사

안녕하십니까? 전북발전연구원장 신기덕입니다.

저는 오는 6월 7일자로 전북발전연구원장 퇴임을 앞두고 떠나기에 앞서 그 동안 연구원을 아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를 사랑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작별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알지만 이렇게 지면으로 대신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대구가 고향인 저에게 전라북도는 낯설고 물설은 곳이었습니다. 3년 전 전북발전연구원장 취임 직후 주변에서 우려 반, 격려 반으로 이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으면서 지역정서상 대척점에 있는 대구사람이 전북발전연구원장을 어떻게 맡게 됐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요즈음 같은 글로벌시대에 어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되받았고, 그렇게 3년 임기를 마치는 동안 전북은 어느새 낯설고 물설은 외로운 섬이 아니라 깊은 애정이 담긴 친숙한 고향으로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취임과 함께 나름대로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전문가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북도정을 리드하는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 같은 제 뜻을 이해하고 잘 따라준 연구원 식구들과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3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합니다. 취임과 함께 강조했다 3년간 추진해 온, 주인의식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연구역량 배가를 위한 교육, 혼자 하는 달한 연구가 아닌 지역전문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기본으로 한 통섭의 연구,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연구원간 건강한 경쟁을 통해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해 왔던 일들이 상당부분 성과를 이뤄 일말 보람되기도 하고 감회 또한 새롭습니다. 지역현안 문제로 연구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몇 날 밤을 고민했던 일, 매달 한 번씩 호프데이를 열어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던 일,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던 일, 모든 것들이 생경하게 떠오르면서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또 한편으로는 낯 부끄러운 기억으로 저며 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은 모두 털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자는 저의 제안이 제 욕심으로 비취질지 두렵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장으로 재임한 지난 3년은 저 개인적으로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만금 등 지역현안문제에 천착하면서 지역에 대한 시각이 넓어졌고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어디를 가던 귀중한 지식자산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전북은 동부권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서남권의 역동적인 새만금이라는 잠재적 자원이 느낌과 빠름을 상호 보완하면서 조화롭게 활용 된다면 어느 지역보다도 더 사람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임기를 마치고 당분간 안식하면서 또 다른 역할과 진로를 위해 고민할 것입니다.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면 그때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회자정리라고 했던가요? 몸은 전북을 떠나지만 마음은 남겨 두고 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제게 베풀어주신 후의와 정리에 감사드리고 제가 떠나더라도 전북발전연구원에 계속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굿은 일 생겼을 때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쯤해서 범정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저의 이임인사를 마치려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2010년 5월

신 기 덕 드림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문촌마을 404-2402

전화: 010-9254-2221

이메일: kdshinn@naver.com